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종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박 영 신[†] 김 의 철 김 영 희
인하대 교육학과 인하대 경영학부 인하대 교육대학원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종단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1,012명 표집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을 거쳐, 중학교 3학년까지 3차에 모두 응답한 739명이 최종 분석대상이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의미있게 예언하는 변인은 폭력가해행동, 과거 일탈행동, 학교처벌경험, 폭력피해경험, 사회성효능감, 도덕적 이탈이었다. 경로분석 결과, 6개 예언변인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인간관계 변인들의 간접적인 영향과, 도덕적 이탈 및 사회성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이 확인되었다. 친구 따돌림은 사회성효능감을 감소시키며, 낮아진 사회성효능감은 폭력피해경험을 증가시키고,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폭력가해행동을 많이 하며, 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일탈행동을 하였다. 부모의 거부, 친구의 따돌림, 교사의 적대 및 과거의 일탈행동은 도덕적 이탈을 증진시키며, 도덕적 이탈은 폭력가해행동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처벌경험이 많고, 처벌을 받을수록 폭력가해행동과 일탈행동에 더욱 개입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들에 토대하여,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 도덕적 이탈과 사회성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 부정적 경험의 누적을 통한 일탈적 삶의 구성, 일탈행동을 가속화시키는 친구 따돌림의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 부모의 거부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경로로서 낮은 학업성취가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일탈행동, 도덕적 이탈, 사회성효능감, 폭력가해행동, 폭력피해경험, 학교처벌경험, 친구 따돌림, 인간관계, 종단분석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41-B00495).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E-mail : yspark@inha.ac.kr

연구 목적: 청소년들이 왜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가?

2005년에 전체 범죄(2,384,613건) 중에서 청소년 범죄(86,014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였으며, 청소년 범죄 중에서 학생범죄(57,980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67.4%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여 법적 조치가 가해진 공식적인 범죄 100건 중에 약 3~4건은 청소년이 관여한 것이며, 청소년 범죄 10건 중에서 6~7건은 학생 범죄로서 학생들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갓거나 보호관찰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공식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해 보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현재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박효정(2005)이 비례할당표본추출법에 의해 전국의 14,04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행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학생의 9.2%가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청소년 일탈행동¹⁾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를 보여

1) 여기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은 유흥업소 출입이나 가출 등 청소년으로서 심각하게 일탈된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청소년 학교폭력행동은 일탈행동 중에서도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또래집단에 대한 다양한 가해행동을 의미하며(피해경험 포함), 이러한 폭력행동이 범죄행동으로까지 확대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 범죄행동은 일탈행동 중에서도 범법행위로서, 그러한 범법행위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게 된 결과를 초래한 행동으로, 예컨대 절도나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등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통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주며,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터하여, ‘청소년들이 왜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한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청소년 일탈행동이 어떠한 환경과 심리 및 행동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박영신, 김의철, 2003b)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추적한 실증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탈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인간관계, 이러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심리특성, 환경 및 심리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다양한 행동 특성들과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로 정리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동안 인간관계와 일탈행동(박영신, 김의철, 2004c), 심리특성과 일탈행동(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등,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서로 연결 짓고 종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일탈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그 변인들 사이에 어떠한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가 하는 매개변인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통합적인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종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일탈행동 형성의 역동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시도한다. 그동안 청소년 일탈행동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횡단적인 자료를 분석해 왔다. 예컨대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의 연구에 의하면 위탁청소년이든 일반청소년이든 모두 폭력가해행동은 다른 일탈행동이나 학교처벌 경험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행동들의 관계만을 분석해서는 이전의 일탈경험이 현재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을 갖는지 알 수 없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으로서 과거의 일탈행동이 일탈적 삶을 구성하며, 나아가서 주된 문화에 속하지 못하고 하류문화에 귀속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모형(박영신, 김의철, 2001a; 그림 1 참고)을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소년원(박영신, 김의철, 1998)이나 보호관찰(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을 받는 청소년들의 환경 및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일반청소년들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예컨대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이 일반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일탈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탈행동이 단지 소년원생이나 보호관찰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청소년들의 발달과정 속에서도 탐구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을 보여준다.

연구 내용: 청소년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많은 변인들을 이 연구에서는 인간관계, 심리, 행동특성이라는 세 영역으로 접근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작용하는 여러 환경 변인 중에 인간관계의 영향력(박영신, 김의철, 2004c)이 확인되어 왔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삶에서 의미있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만이 아니라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교사의 적대적 태도, 친구 따돌림과 같은 관계에 대한 지각도 포함하고자 한다.

둘째, 심리 특성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심리 변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를 토대로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 및, 이외에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 특성과 생활만족도 학업포부수준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포함한다.

셋째, 다양한 행동 특성들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일탈행동과 가출이나 성취행동들 사이의 관계(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폭력가해 폭력 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일탈행동 및 학교처벌경험에서의 차이(박영신, 김의철, 2001b) 등이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특성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시기에서의 일탈행동, 학교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경험, 학교처벌경험과 같이 부정적인 경험과, 학업성적 공부시간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측정하는 변인들로 구성한다.

**인간관계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의미있는 타인의 거부가 남기는 상처들**

소년원 창살을 붙들고 크리스마스에 부모의 면회를 기다리지만, 이미 자녀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부모로부터 거부된 자녀(박영신, 김의철, 2004b)의 마음에 남는 상처는 무엇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매일 저녁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학원으로 승용차를 태워 주고 입시정보를 수집해 주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에게는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일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엄연한 현실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탈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부정적이다.

사례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만이 아니라 대량의 질문지를 통한 양적 분석에서도 일탈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일반청소년과는 다른 것으로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하였을 때,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더욱 부모를 신뢰하지 않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가 더욱 자녀에 대한 신뢰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서 갈등을 느끼고 적대적이었으며, 자녀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위탁청소년의 경우도(박영신, 김의철, 2001a) 부모의 애정은 적게 받고 더욱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경험과학적 연구들을 개관(박영신, 김의철, 2004c)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 부모의 자녀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 가장 믿고 의지하

고 싶은 존재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이 일탈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c)이 부모 외에도 수직적인 인간관계로서 교사와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일탈청소년은 교사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처벌 경험이 많았다. 한편 수평적인 인간관계라 할 수 있는 친구관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기에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이 증가되고, 친구관계가 일탈행동을 촉진하는데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의 연구에서도 위탁 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교사와 더욱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폭력가해 및 피해 집단이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친구관계에서도 따돌림을 받았다(박영신, 김의철, 2001b).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건전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 일탈행동을 야기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에게 인간관계에서의 실패나 결손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청소년들보다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에 대한 정의를 사람의 개인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관계중심적인 문화(Allwood et al, 2006)에서는 관계의 결손이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심리특성과 일탈행동의 관계: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재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소

에 도착한 청소년들과 면담했을 때 쉽게 발견되는 공통된 반응은 반성이 아니라 억울함 또는 재수없음이었다. 예컨대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지 않았으면 타고가지 못했을텐데, 키를 꽂아 둔 주인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기 때문에 타고 갔을 뿐이며, 오토바이 주인의 잘못 때문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억울해 하였다. 예컨대 다른 공범은 더 많이 도둑질하고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는데, 본인은 이런 정도 작은 것을 훔치고도 잡혀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즉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소한 잘못을 범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게 된 억울함 또는 재수없음을 표출했다. 예컨대 공범이 있었지만 공범의 부모는 과출소에 와서 ‘뺨’을 쓰고 ‘돈’을 써서 풀려나고, 본인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에 넘겨져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재수없게 걸려서 돈도 없고 뺨도 없는 놈만 억울하게 당한다는 반응 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까지 담겨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4c).

이러한 일탈청소년들에게서 만연되어 있는 심리적인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Bandura(1995)가 제안한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 변인은 매우 정확하게 이러한 심리적 특징을 설명해 준다. Bandura는 도덕적 이탈을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표현, 상대적 비교, 책임감 분산, 책임 전이, 행동의 영향에 대한 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는 변인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

Bandura(1995)의 도덕적인 이탈 변인을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분석에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설택과 교육청에 위탁된 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생을 비교(박영신, 김의철, 2001a) 하

였을 때, 위탁 청소년이 자기조절학습효능감 및 어려움극복효능감은 낮았으나 도덕적 이탈의 정도는 높았다. 또한 일반 초 중 고등학생을 표집대상으로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1b) 하였을 때도 폭력가해집단이 폭력무경험집단보다 심리적으로 도덕적 이탈이 심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6)의 연구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더욱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었고, 사회성효능감은 높았으며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낮았다. 또한 관별분석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을 관별하는 가장 설명력있는 변인으로 도덕적 이탈과 사회성효능감이 확인되었다.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도덕적 이탈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도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사회성효능감은 사소한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김의철, 박영신, 1999). 또한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사회성효능감이 더 높았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 (1996)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탈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물론 도덕적 이탈이나 자기효능감 외에 스트레스 등도 일탈행동과 관련된 심리특성 변인으로서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사소한 문제행동 및 심각한 일탈행동과 모두 정적 관계에 있었다.

일탈행동의 경험, 그리고 누적의 메커니즘

청소년 범죄 재범률에 대한 통계(대검찰청, 2007)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전과없음

62.3%, 1범 이상 31.0%, 미상 6.7%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범이 2/3이고 재범 이상이 1/3이므로, 3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재범으로 인해 전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번 일탈행동에 가담했던 청소년이 반복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일탈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다양한 일탈행동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다. 폭력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일탈행동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의 처벌경험도 많다는 사실이 위탁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1a)에서 밝혀졌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의 연구에서도 폭력가해행동과 폭력피해경험이 일탈행동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6)의 연구에 의하면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과 행동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친구와 PC방이나 오락실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냈으며, 이와 같이 가출을 유혹하는 환경에 더 많이 접하고 실제로 가출도 많이 하였다. 학업이나 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실제로 학업성취도도 낮았다.

부정적 행동의 상호유기적 관계는 환경변인 및 심리특성과 어우러지면서 일탈행동의 순환을 통해 일탈적 삶을 형성해 간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폭력가해집단이 폭력무경험집단보다 도덕적 이탈이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탈행동도 많이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1b). 청소년들이 다양한 일탈행동에 개입하면서, 누적된 일탈행동은 하나의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일탈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서의 삶이 전개된다(박영신, 김의철, 2001a; 그림 1 참고).

박영신과 김의철(2003b)이 청소년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개인의 심리 행동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한 결과는, 일탈청소년의 삶이 일반청소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를 구성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방 법

표집대상

이 연구를 위한 최초 표집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 1,012명이었다. 표집된 초등학생들은 중산층 아파트단지나 밀집해 있는 비교적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 재학생들이었다. 표집대상 4개 초등학교의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1년 뒤에 최초 표집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2차 표집을 하였다.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개 중학교로 흩어졌으나, 그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진학한 4개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 중학교는 1차 질문지를 실시한 초등학교와 거리적으로 가깝고, 비교적 학군이 좋은 동일한 지역이었다. 4개 중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질문지를 실시했던 학생들을 모두 추적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차 질문지를 실시한 표집대상은 846명이었으며, 남녀 학생이 고루 분포되었다.

다시 2년이 지난 뒤에, 2차 표집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3차 종단

표집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3차 표집대상 학교는 2차 표집대상 학교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2년 사이에 집이 이사를 가서 학교를 전학 간 학생들이 있었고, 일부는 질문지를 표집하는 당시에 건강 등의 이유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표집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시기의 2차 질문지에는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6학년 때 1차 질문지에 응답을 한 학생들이 발견되어, 그들도 모두 질문지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3차 질문지에 응답한 표집대상은 총 796명이었다. 3차에서도 남녀 학생이 고루 포함되었다.

표집대상을 정리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집대상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질문지에 응답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에만 질문지를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 표집되었으나 중학교 1학년 시기의 2차 질문지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3차 질문지에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세차례 질문지에 모두 응답한 학생들을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대상 수는 739명이었으며, 남학생 370명 여학생 36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통계분석에 활용된 대상은 동일한 지역의 4개 중학교에서 표집된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이었으며, 그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에 모두 질문지에 응답한 종단적으로 추적된 청소년들이었다.

4개 중학교에 분산된 3차 종단 추적 분석대상들은 한국의 비교적 학군이 양호한 지역의 평범한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평균 성적을 질문하였을 때, 총 739명 중에서 2명이 응답을 하지 않아 737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약간 좋은 편으로 전반적으로 정상분포에 가까웠다. 상집단 11.5%, 중상집단 30.9%, 중집단 26.4%, 중하집단 23.3%, 하집단 7.7%로 구성되었다. 학급의 다른 학생에 비교할 때 본인의 성적에 대해 736명이 응답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상집단이 조금 더 많았으나 거의 정상분포를 보였다. 즉 상집단 13.0%, 중상집단 28.8%, 중집단 27.7%, 중하집단 20.8%, 하집단 9.2%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종단 분석대상은 학업성적상 중 하 집단이 정상분포를 이루며 고루 섞여 있다.

분석대상들의 아버지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0.4%, 중학교 졸업이 2.2%, 고등학교 졸업이 44.1%, 대학교 졸업이 44.4%, 대학원 졸업이 8.1%였다. 그러므로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0.8%, 중학교 졸업이 4.9%, 고등학교 졸업이 67.8%, 대학교 졸업이 22.7%, 대학원 졸업이 3.0%였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의 어머니 경우는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로서, 아버지보다는 약간 학력이 낮은 편이었다. 가정경제생활수준은 상집단이 0.1%,

표 1. 표집대상

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남	536	428	407
녀	476	418	389
계	1,012	846	796

중상집단이 4.9%, 중집단이 39.1%, 중하집단이 40.6%, 하집단이 14.3% 였다. 부모의 학력수준 및 가정경제생활수준을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한국의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대부분의 변인들을 측정하는 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하였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학자들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표 2에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측정변인의 구성과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주된 관심이 있지만, 청소년 일탈행동에 관련된 변인들과 더불어 이와 대조되는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도 측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측정도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은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된다. 즉 인간관계 영역, 심리특성 영역, 행동특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인간관계 영역에는 청소년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Rohner의 부모양육태도 질문지에 포함된 애정, 적대, 통제, 거부 변인을 번역하여 적절한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원은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a = .74 \sim .88$ 로써 양호하였다.

교사학생관계의 하위변인인 애정, 적대, 정서적 지원의 문항은 부모자녀관계 하위변인과 동일하였다. 지시문만 부모가 아닌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수정되었다. 신뢰도는 $a = .91 \sim .92$ 로 매우 양호하였다.

친구관계는 애정, 따돌림, 정서적 지원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친구와의 관계에 적절한 문항들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신뢰도는 $a = .77 \sim .99$ 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심리특성 변인으로는 5개를 포함하였다. 그 중에서 도덕적 이탈은 Bandura(1995)의 도덕적 이탈 질문지를 번역하여 그 중에서 양호한 문항들이 12개 선별되었다. 12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심각한 불법행동에 비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라든가 '많은 돈을 훔치는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을 훔치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하는 6개 문항들로 묶여진 요인에 대해 '상대적 비교'라고 명명하였다. 즉 잘못된 행동을 절대적인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사소한 잘못 정도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일탈을 측정하는 하위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뭇살스러운 애를 때림으로써 그 애가 잘못을 깨닫도록 한다' 라든가 '우리 가족을 못살게 하는 사람은 때려도 괜찮다' 등을 포함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당화'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2개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각각 .67과 .72였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5)가 제작한 학업 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번역하여 적절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사회성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은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a = .72 \sim .88$ 로 양호하였다.

표 2. 측정변인의 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구성	Cronbach α	
인간관계	부모자녀관계	애정	1 9 16 23 30 37 44	.84
		적대	2 8 15 22 29 36 43	.84
		통제	3 10 17 24 31 38 45	.80
		거부	5 12 19 26 33 40 47	.82
		성취압력	4 11 18 25 32 39 46	.74
		정서적 지원	6 13 20 27 34 41	.88
	교사학생관계	애정	1 4 7 10 13 16 19	.92
		적대	2 5 8 11 14 17 20	.91
		정서적 지원	3 6 9 12 15 18	.92
	친구관계	애정	1 4 7 11 13 16 19	.90
		따돌림	2 5 8 11 14 17 20	.77
		정서적 지원	3 6 9 12 15 18	.89
도덕적 이탈	전체	1 ~ 12	.76	
	상대적 비교	3 6 7 9 10 11	.67	
	도덕적 정당화	1 2 4 5 8 12	.72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6 12 18 24 30 36	.72
		자기조절학습	1 7 13 19 25 31	.83
		자기주장	4 10 16 22 28 34	.84
사회성		5 11 17 23 29 35	.88	
심리특성	관계	3 9 15 21 27 33	.73	
	어려움극복	2 8 14 20 26 32	.86	
	학업포부수준	-	고등학교 진학여부, 학업지속 정도	-
	스트레스	전체	1 ~ 12	.89
		신체 증상	1 2 3 4 5 6	.81
		심리 증상	7 8 9 10 11 12	.84
생활만족도	3년 전	-	-	
	1년 전	-	-	
	현재	-	-	
	1년 후	-	-	
	3년 후	-	-	
행동특성	심각한 일탈행동	-	1 2 3 4 5 6 7 8 9	.79
	학교폭력행동	가해행동	1 ~ 16	.91
		피해경험	1 ~ 16	.92
	학교처벌경험	-		-
	학업성적	-	평균 성적, 다른 학생 비교 성적	-
	공부시간	-	과외공부시간, 학원공부시간, 학교외 공부시간	-
	과거일탈행동	사소한 문제행동 (초 6)	10 11 12 13 14 15 16	.67
		심각한 일탈행동 (초 6)	1 2 3 4 5 6 7 8 9	.77
		사소한 문제행동 (중 1)	10 11 12 13 14 15 16	.70
		심각한 일탈행동 (중 1)	1 2 3 4 5 6 7 8 9	.52

학업포부수준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여부는 고등학교 진학 안 함, 실업고 진학, 인문고 진학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정도는 고 졸, 전문대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졸과 같은 네 단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두 문항의 응답을 합하여 학업포부수준으로 하였다.

스트레스는 심리증상과 신체증상을 측정하는 각각 6개의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제작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alpha = .81 \sim .84$ 로 양호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사다리를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표시된 그림으로 제시하고, 현재, 1년 전, 3년 전, 1년 후, 3년 후에 예상되는 생활만족도를 각자 숫자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시점에서의 생활만족도가 측정되었다.

행동특성 영역에서는 6개의 측정변인을 다루었으며 모두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심각한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일탈행동들을 포함하는 총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문항 예: 학교 무단결석, 유흥업소 출입, 이성친구와 성적인 접촉, 가출 등).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중학교 3학년에서 모두 동일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심각한 일탈행동의 신뢰도는 각각 $\alpha = .77, .52, .79$ 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비록 신뢰도가 낮았으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서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심각한 일탈행동은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의 일탈행동을 의미하며, 과거 일탈행동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을 각각 포함한다. 과거 일탈

행동의 하위변인으로 이 외에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의 사소한 문제행동(문항 예: 전자오락실 가기, 노래방 가기 등)을 포함하였는데, 신뢰도는 각각 .67과 .70 이었다.

학교폭력행동은 가해행동(문항 예: 나는 다른 아이들을 심하게 폭행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등)과 피해경험(문항 예: 다른 아이가 주먹이나 발로 나를 때린다, 다른 아이가 내 돈을 빼앗는다 등)의 2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16개의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alpha = .91 \sim .92$ 로 매우 양호하였다.

학교처벌경험은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경험을 질문하였다. 답지는 ‘없다, 1번, 2번 이상’의 세 개 중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학업성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현재의 평균 성적을 상에서 하까지 5개의 답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급의 다른 학생에 비교할 때 본인의 성적을 역시 동일한 답지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학업성적으로 하였다.

공부시간은 과외 공부시간, 학원 공부시간, 학교 외 공부시간의 세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각각 시간을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응답한 시간들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공부시간 변인을 측정 하였다.

실시 및 분석방법

앞의 표집대상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를 위해서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비교적 학군이 좋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종단 1차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러

한 협조를 얻기 위해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6학년 학년부장 및 담임선생님 전체에게 이 질문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즉 이 학생들을 앞으로 계속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질문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되어 청소년 교육에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학교 현장의 도움으로 4개 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이 모두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하였다. 표집대상 학생들에게 질문지와 함께 협조를 부탁하는 뜻에서 선물을 제공하였다.

1년 뒤에 종단 1차 표집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한 동일한 지역의 4개 중학교를 찾아갔다. 각 중학교의 교장선생님과 1학년 부장선생님 및 1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종단연구의 진행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질문지를 실시했던 학생들의 이름과 소속 초등학교를 생활기록부에서 모두 추적하여 각 학생들이 1학년 몇 반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각 반의 담임선생님들께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질문지 실시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확인된 표집대상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하면서 선물도 함께 전하였으며, 성실한 응답을 부탁하였다.

다시 2년이 지나서 표집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종단 3차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교장선생님과 3학년 학년부장 및 담임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표집된 종단 1차 대상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어느 반에 속해 있는지를 모두 확인 하였다. 표집대상 학생들에게 모두 질문지와 선물을 함께 나누어 주었으며, 응답

결과는 한국 청소년을 이해하는 연구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한국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대표하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표집대상 학생들이 보다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질문지에 이름을 쓰지 않았으며 ID 번호를 기록해서 모든 표집대상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이 ID 번호를 통해 표집대상 학생들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응답 질문지와 짝지을 수 있었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다.

이와 같이 4년에 걸쳐 3번의 질문지 실시를 통해 모아진 자료는 1차에서 3차까지 각 표집대상 별로 짝을 맞추어 입력되었다. 입력된 자료는 입력과정의 실수가 없는지를 모두 재확인되었으며, 측정변인에 대한 신뢰도와 변인간의 상관,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일탈행동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행동특성의 관계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환경변인으로서 인간관계와,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특성 변인들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전체적인 관계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탈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변인들만이 아니라, 일탈청소년들과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들 즉 학업에 충실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모범적이라고 인식되는 청소년들

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들도 함께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3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인간관계, 심리, 행동특성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인간관계 변인들 중에서 부모자녀관계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거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적대도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애정과 정서적 지원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교사학생관계에서는 적대, 친구관계에서는 따돌림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일탈청소년들은 부모가 자기에 대해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며, 교사도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탈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또한 학교에서 교사 및 친구와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탈행동과 심리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5개의 하위변인들 중에서 도덕적 이탈과의 상관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상대적 비교와 도덕적 정당화 모두 .21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가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범법행위들에 비해 사소한 정도의 잘못은 할 수 있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더욱 일탈행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일탈행동을 하였다.

도덕적 이탈 외에도 스트레스는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신체증상이 심리증상보다 상관의 강도가 좀 더 높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더욱 일탈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일탈행동과 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일탈행동에 개입하였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활만족도를 구분하였을 때, 과거 1년 전, 앞으로 1년 후, 앞으로 3년 후의 생활만족도는 현재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일수록 현재의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만족도 지각 및 미래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전망이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외에 심리특성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과 학업포부수준이 있었는데, 모두 거의 무상관에 가까웠다. 관계효능감은 일탈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의 강도는 낮았다. 요약하면 학업성취를 잘 설명해 주는 변인들이 일탈행동과의 관련성은 별로 없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의 5개 하위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교폭력행동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r=.50$ 이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r=.35$ 로서 일탈행동과 상관을 구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변인들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외의 다양한 일탈행동들에도 긴밀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행동이 피해경험보다 더욱 높은 상관계수를 보임으로써, 학교폭력행동 중에서도 가해행동이 피해경험보다 다양한 일탈행동에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학교폭력행동 외에 과거의 일탈행동경험 역시 현재의 일탈행동과 관련이 깊었다. 이 연

표 3. 일탈행동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행동특성의 상관관계

변인	하위변인	심각한 일탈행동 (중 3)	
인간관계	부모자녀관계	애정	-.11**
		적대	.14***
		통제	.10**
		거부	.18***
		성취압력	-.03
		정서적 지원	-.11**
	교사학생관계	애정	-.07*
		적대	.12***
		정서적 지원	-.06
친구관계	애정	.00	
	따돌림	.15***	
	정서적 지원	-.04	
심리특성	도덕적 이탈	전체	.25***
		상대적 비교	.23***
		도덕적 정당화	.21***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01
		자기조절학습	-.06
		자기주장	.04
		사회성	.07
		관계	-.08*
	어려움극복	-.01	
	학업포부수준	-	-.07
	스트레스	전체	.12***
		신체 증상	.13***
심리 증상		.10**	
생활만족도	3년 전	-.09*	
	1년 전	-.13***	
	현재	-.14***	
	1년 후	-.14***	
	3년 후	-.11**	
행동특성	학교폭력행동	가해행동	.50***
		피해경험	.35***
	학교처벌경험	-	.16***
	학업성적	-	-.09*
	공부시간	-	-.04
	과거일탈행동	사소한 문제행동 (초 6)	.14***
심각한 일탈행동 (초 6)	.06		
사소한 문제행동 (중 1)	.22***		
심각한 일탈행동 (중 1)	.25***		

* $p < .05$, ** $p < .01$, *** $p < .001$

구의 표집대상들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2년 전 즉 그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상관은 $r=.25$, 사소한 문제행동과는 $r=.22$ 로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교 1학년에서 일탈행동의 경험은 2년 뒤의 일탈행동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더 먼 과거로 돌아가서 이 연구의 표집대상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 일탈행동은 비록 더 가까운 과거인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일탈행동보다는 상관의 정도가 낮았으나, 역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학교에서 처벌경험과 일탈행동의 상관을 보면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처벌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는 부적인 방향을 보였으나 상관의 강도가 낮았다.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일탈행동에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부시간과는 무상관에 가까운 값을 보임으로써, 공부하는 시간은 일탈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탈행동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을 모두 투입하여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요인의 수를 2개로 고정한 이유는,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된 요인과,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요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베리맥스 회전을 하여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1에 총 15개의 하위변인들이 포함되었는데 eigenvalue는 5.60이었으며 설명변량은

15.68%를 나타내었다. 요인 1에서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인 변인은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하위변인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과 같이 긍정적인 관계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그리고 미래 3년 후의 생활만족도가 포함되었다. 친구관계에서의 따돌림도 요인 1에 포함되었으나, 요인부하량의 방향이 부적이므로, 다른 변인들과 관계의 방향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학업포부수준 및 공부시간도 요인1에 포함되었다.

요인 2의 경우는 23개의 변인들이 포함되었는데, eigenvalue가 4.81이고 설명변량도 12.66%로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거부와 적대, 그리고 교사관계에서의 적대와 같이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들이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원 및 교사학생관계에서 애정도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나, 모두 부적인 값을 보임으로써, 요인 2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과 관계의 방향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심리증상도 모두 요인 2에 포함되었는데 요인부하량의 방향은 부적이었다. 그리고 현재 및 과거의 심각한 일탈행동이나 사소한 문제행동들, 그리고 도덕적 이탈의 두 하위변인들인 도덕적 정당화와 상대적 비교, 학교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경험, 그리고 학교처벌경험이 모두 정적인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며 요인 2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인구조를 볼 때 요인 2는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요인이며 이러한 일탈행동과 관련된 하위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인 1은 일탈행동과 질적으로 다른 하위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행동 변인 중에서 학업성

취행동과 관련된 하위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1을 학업성취 요인으로, 요인 2를 일탈행동 요인으로 명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은 잠정적인 것이며,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요인에 대한 이름은 다르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일탈행동과 대조되는 행동 특성으로 학업성취행동에 주목하고, 두 요인의 축을 이와같이 잠정적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요인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이 매우 많은데다가, 각 변인들의 요인부하량들이 정적인 값들

도 있지만 부적인 값들도 상당수 있고, 또한 각 변인들이 속한 요인 외의 다른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의 상대적인 값의 크기도 모두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하위변인들의 전체적인 요인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그림 1과 같은 요인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1을 보면 학업성적은 부모자녀관계나 교사학생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원과 애정, 그리고 다양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 및 생활만족도, 그리고 학업포부수준 및 공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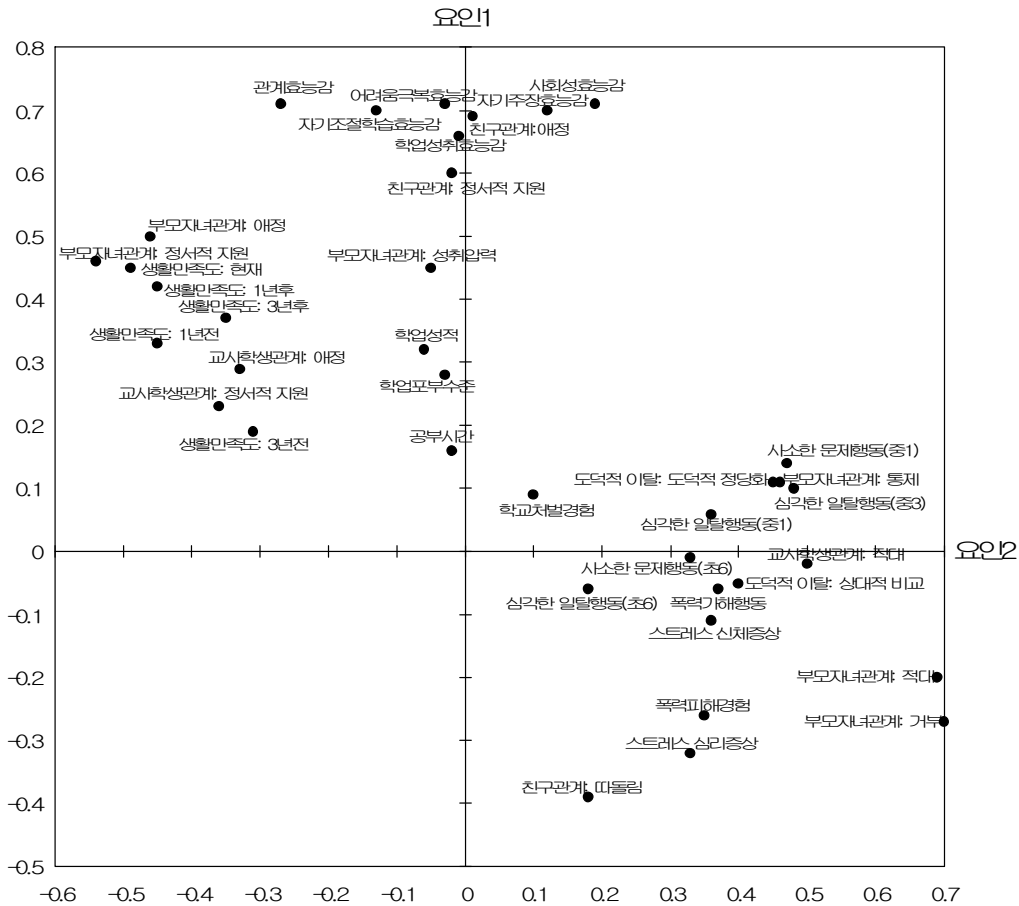


그림 1. 일탈행동 요인과 학업성취 요인의 요인구조

들과 함께 요인 1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교 3학년에서의 일탈행동 변인은 과거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이나 사소한 문제행동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심리특성 변인으로서는 도덕적 정당화 및 상대적 비교라는 도덕적 이탈의 하위변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및 심리 증상도 요인 2에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경험과 같은 학교폭력행동 변인들도 요인 2를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통제 적대 거부, 교사학생관계에서 적대, 친구관계에서 따돌림과 같이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하위변인들도 요인 2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및 심리특성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반면에 요인 2는 일탈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간관계와, 도덕적 이탈 및 스트레스, 그리고 청소년 초기부터 누적되어온 다양한 일탈행동을 통한 부정적인 경험들, 학교 폭력에의 개입과 학교에서의 처벌경험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행동들이 얽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림 1의 결과는 각 요인의 내적 구조가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탈행동을 의미있게 예측하는 변인들

표 3의 상관관계 분석과 그림 1의 요인분포도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변인들간의 관계는 파악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변인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변인들 중에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을 잘 예측하는 상대적으로 보다 설명력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이 연구에서 다룬 거의 대부분의 변인들이었다. 즉 부모자녀관계(애정, 적대, 통제, 거부, 성취압력, 정서적 지원), 교사학생관계(애정, 적대, 정서적 지원), 친구관계(애정, 따돌림, 정서적 지원), 도덕적 이탈(상대적 비교, 도덕적 정당화), 자기효능감(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 자기주장, 사회성, 관계, 어려움극복), 학업포부수준, 스트레스 증상(신체증상, 심리증상), 학교폭력행동(가해행동, 피해경험), 학교처벌경험, 학업성적, 공부시간, 과거 일탈행동(초등학교 6학년-사소한 문제행동, 초등학교 6학년-심각한 일탈행동; 중1-사소한 문제행동, 중학교 1학년-심각한 일탈행동), 생활만족도(3년 전, 1년 전, 현재) 이었다. 단 1년 후의 생활만족도와 3년 후 생활만족도 변인은 현재의 일탈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변인이자기보다, 미래에 대한 응답자의 예측이므로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beta = .36$ 으로서 투입 변인들 중에서 현저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외에도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학교처벌경험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β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p < .01$ 수준에서, 사회성 효능감과 상대적 비교를 통한 도덕적 이탈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모두 $\beta = .10$ 이상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6개 예측변인의 일탈행동과의 중다상

표 4.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R	R ²
폭력가해행동	.54	.36 ***	.60	.356
심각한 일탈행동(중1)	.45	.13 ***		
학교처벌경험	.30	.12 ***		
폭력피해경험	.14	.14 **		
자기효능감: 사회성	.04	.11 *		
도덕적 이탈: 상대적 비교	.06	.10 *		

* $p < .05$, ** $p < .01$, *** $p < .001$

관은 .60이었으며, $R^2 = .36$ 으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교에서 폭력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폭력 외의 여러 가지 일탈행동들에도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높으며, 일탈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 학교에서 또래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초기의 과거에 일탈행동에 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중기가 되어서도 역시 일탈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에서 처벌을 받는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았다. 폭력피해경험의 β 값이 정적으로 나오므로써,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폭력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보다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낮지만,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대적 비교와 같은 도덕적 이탈의 심리도 일탈행동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6개의 예언변인들만으로도 일탈행동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함으로써, 이 6개 변인들의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높다.

표 5는 표 4에서 심각한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들로 확인된 6개의 변인들과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6개의 예측변인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들 중에 B값과 β 값이 가장 컸기 때문에, 표 5에서 6개 변인과 더불어 추가로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도덕적 이탈: 상대적 비교는 부모자녀관계의 하위 변인들 중에서 거부와 가장 정적 상관($r = .24$)의 정도가 높았고, 이외에도 적대 및 통제와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정서적 지원, 애정, 성취압력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교사학생관계와도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적대가 정적 상관관계($r = .16$)를 보였다. 친구관계의 하위변인들과도 의미있는 관계에 있었으나, 특별히 친구의 따돌림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r = .22$)이 있었다. 도덕적 이탈의 하위변인인 도덕적 정당화와는 $r = .42$ 로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관계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업포부수준 및 생활만족도와는 부적관계에 있었으며, 스트레스와는 거의 무상관이었다. 행동특성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학교폭력행동의 하위변인인 가해행동($r = .25$) 및 피해경험($r = .22$)과 각각 정적

표 5.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행동특성 변인들간의 관계

변인	하위변인	도덕적 이탈: 상대적 비교	사회성 효능감	스트레스 신체 증상	학교 폭력 가해 행동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 차별 경험	심각한 일탈 행동 (중1)	
인간 관계	부모자녀 관계	애정	-.12***	.20***	-.11**	-.14***	-.15***	.00	-.08*
		적대	.19***	-.05	.26***	.13***	.19***	.02	.11**
		통제	.12***	.03	.15***	.03	.10**	.05	.07
		거부	.24***	-.07	.27***	.18***	.27***	.01	.12***
		성취압력	-.12***	.17***	-.01	-.06	-.08*	.02	-.05
	교사학생 관계	정서적 지원	-.16***	.17***	-.18***	-.12***	-.14***	-.01	-.09*
		애정	-.12***	.08*	-.05	-.15***	-.12***	.03	-.08*
		적대	.16***	.09*	.08*	.11**	.18***	.05	.12***
		정서적 지원	-.13***	.04	-.04	-.12***	-.09*	.01	-.07*
		애정	-.12***	.48***	-.05	-.11**	-.27***	.03	.04
친구관계	따돌림	.22***	-.21***	.07	.21***	.42***	.12***	.06	
	정서적 지원	-.18***	.39***	-.04	-.14***	-.34***	.00	.01	
	전체	.76***	.04	.01	.24***	.16***	.02	.23***	
도덕적 이탈	상대적 비교	-	-.03	-.04	.25***	.22***	.00	.20***	
	도덕적 정당화	.42***	.07	.04	.17***	.08*	.03	.19***	
	학업성취	-.07*	.36***	.00	-.07	-.16***	.00	-.01	
	자기조절학습	-.11**	.35***	-.07	-.09*	-.18***	.03	-.07*	
	자기주장	-.03	.64***	-.07*	-.04	-.17***	.08*	.04	
	사회성	-.03	-	-.05	-.08*	-.16***	.10**	.07	
	관계	-.18***	.50***	-.15***	-.18***	-.26***	.03	-.03	
어려움극복	-.07*	.52***	-.08*	-.03	-.14***	.10**	.02		
심리 특성	학업 포부수준	-	-.13***	.02	.06	-.09*	-.10**	-.08*	
	전체	-.02	-.16***	.92***	.14***	.17***	-.05	.09*	
	신체 증상	-.04	-.05	-	.13***	.13***	-.05	.08*	
생활 만족도	심리 증상	.00	-.25***	.68***	.13***	.19***	-.05	.08*	
	3년 전	-.13***	.06	-.14***	-.06	-.16***	.08*	-.06	
	1년 전	-.08*	.16***	-.26***	-.10**	-.24***	.03	-.07	
	현재	-.11**	.19***	-.31***	-.10**	-.22***	.05	-.07	
	1년 후	-.15***	.19***	-.21***	-.10**	-.18***	.04	-.05	
행동 특성	학교 폭력행동	가해행동	.25***	-.08*	.13***	-	.60***	.12***	.15***
		피해경험	.22***	-.16***	.13***	.60***	-	.10**	.06
	학교 차별경험	-	.00	.10**	-.05	.12***	.10**	-	.00
	학업성적	-	-.09*	.02	.05	-.06	-.10**	-.11**	-.06
	공부시간	-	-.03	.03	-.02	.00	-.04	-.01	-.07
	과거 일탈행동	사소한 문제행동 (초 6)	.15***	.08*	.07*	.11**	.11**	-.02	.26***
		심각한 일탈행동 (초 6)	.13***	-.04	.02	.06	.07	.00	.40***
사소한 문제행동 (중 1)		.21***	.18***	.09*	.18***	.06	.07	.39***	
심각한 일탈행동 (중 1)		.20***	.07	.08*	.15***	.06	.00	-	

* $p < .05$, ** $p < .01$, *** $p < .001$

상관을 보였다. 학교처벌경험이나 공부시간과는 무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학업성적과는 부적 상관이었으나 상관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 과거의 일탈행동은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탈행동보다는 가까운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의 사소한 문제행동 및 일탈행동($r=.20$)과 더욱 상관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모가 거부적이고 선생님이 적대적이며 친구들이 따돌린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으로 도덕적인 이탈이 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탈될수록 폭력피해경험도 많고 폭력가해행동에도 많이 가담하며, 과거에 일탈행동을 한 경험도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회성효능감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정, 정서적 지원, 성취압력과 정적 관계였으며, 교사학생관계와는 거의 무상관을 보였고, 친구관계에서 애정 및 정서적 지원과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고, 따돌림과는 부적 상관($r=-.21$)을 보였다. 도덕적 이탈, 학업포부수준과는 거의 무상관이었으며,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생활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행동특성 변인 중에서 폭력피해경험과 부적 상관($r=-.16$)을 보였으며, 학교처벌경험($r=.10$) 및 중학교 1학년에서의 사소한 문제행동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학업성적 및 공부시간과는 무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들이 사회성효능감이 낮으며, 사회성효능감이 낮을수록 폭력피해경험이 많고, 학교에서의 처벌은 오히려 사회성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하였다.

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인간관계 변인들을

보면, 부모의 거부($r=.27$)나 적대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교사의 적대($r=.08$)와도 정적 관계에 있으나 상관 정도는 낮다. 친구관계의 하위변인들과는 거의 무상관이었다. 심리특성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도덕적 이탈, 학업포부수준, 관계효능감을 제외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 거의 무상관을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심리증상과는 높은 정적 상관($r=.68$)이 있었다.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행동특성 하위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폭력피해경험($r=.13$) 및 폭력가해행동($r=.13$)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학업성적, 공부시간, 학교처벌경험, 과거 일탈행동과는 거의 무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부모가 거부적이고 교사가 적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 증상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폭력피해경험이 많고 폭력가해행동에도 많이 가담하였다.

폭력가해행동과 인간관계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의 경우에 거부와 정적인 관계($r=.18$)에 있고 애정과는 부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애정 및 정서적 지원과는 부적 관계에, 친구의 따돌림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심리특성 변인들로서 도덕적 이탈: 상대적 비교는 높은 정적인 상관($r=.25$)이 있었으며, 관계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 외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과는 거의 무상관에 가까웠다. 학업포부수준 및 생활만족도와는 낮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스트레스 신체증상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행동특성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폭력피해경험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r=.60$)을 나타내었고, 학교처벌경험($r=.12$) 및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과도 정적인 상

관($r=.15$)을 보였다. 그러나 학업성적이나 공부 시간과는 무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폭력가해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거부적이라고 지각하고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도 강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도 있었다. 특별히 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이 폭력가해행동을 하는 정도가 매우 높으며, 폭력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처벌경험 및 과거에 심각한 일탈행동에 개입한 경험도 많았다.

폭력피해경험은 부모의 거부와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r=.27$)이 있었으며, 적대वाद 정적 상관이었으나, 애정이나 정서적 지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교사학생관계에서는 적대와 정적 관계($r=.18$)를 보였으나, 애정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친구의 따돌림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계수($r=.42$)를 나타내었고,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도덕적 이탈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 즉 관계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사회성효능감, 학업성취효능감 등과 모두 부적 관계에 있었다. 스트레스와는 정적 관계를, 생활만족도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폭력가해행동과는 높은 정적 관계에 있지만, 학업성적, 공부시간, 학교처벌경험, 과거 일탈행동과는 관계의 정도가 약하였다. 그러므로 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가 거부적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따돌리며 교사도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들은 사회성효능감이 낮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은 많은 편이며, 폭력피해경험을 많이 당한 청소년들이 폭력가해행동에 많이 개입함을 알 수 있다.

학교처벌경험과의 상관을 보면, 친구 따돌

림과 정적 관계에 있으나 상관이 낮고, 부모 자녀관계나 교사학생관계와는 무상관이었다. 심리특성 변인들 중에서는 도덕적 이탈,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와 무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사회성효능감($r=.10$)과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의 정도는 낮으나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행동변인들 중에서는 폭력가해행동($r=.18$) 및 폭력피해경험과 정적인 관계, 학업성적과는 부적 관계($r=.11$)에 있었다. 그러나 공부시간 및 과거 일탈행동과는 무상관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처벌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사회성효능감이 꽤 있는 편이나, 학업성적은 낮은 편이며, 폭력가해행동에도 개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일탈행동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r=.12$), 교사의 적대적인 태도($r=.12$)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친구관계와는 무상관을 나타내었다. 심리특성 변인 중에는 도덕적 이탈의 상대적 비교($r=.20$) 및 도덕적 정당화와 모두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학업포부수준,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와는 거의 무상관이었다. 폭력가해행동과는 정적인 상관($r=.15$)이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심각한 일탈행동($r=.40$)과는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사소한 문제행동과도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과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나중에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와 교사의 적대적인 태도에 연결되고 있으며, 과거에 심각한 일탈행동에 개입했던 청소년들은 도덕적으로 이탈되고, 나중에 폭력가해행동에도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경로분석

상관관계(표 3, 표 5 참고)와 요인분포(그림 1 참고) 및 중다회귀분석(표 4 참고) 결과에 기초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중학교 3학년의 일탈행동은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의 일탈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보다는 사소한 문제행동과 약간 더 상관이 높았으나(표 3 참고), 초 6과 중 1 및 중 3 시기에서 심각한 일탈행동을 경로모형에 포함함으로써 동일한 측정변인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은 중학교 3학년에서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탈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는 도덕적 이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경로가 설정되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은 중학교 3학년에서 부모의 거부라든가 교사의 적대적인 태도와 같이, 현재 부모 및 교사와의 부정적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현재 청소년의 행동특성으로서 학교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경험이 중학교 3학년에서의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학교처벌경험은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처벌경험이 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주어 폭력가해행동을 통해 일탈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교처벌경험은 학업성적과 연관되어졌다.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변인들은 상대적 비교와 같은 도덕적 이탈과 사회적 효능감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심리특성 변인들이 각각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행동이나 학교처벌경험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환경특성으로서 인간관계 변인은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모두 포함하였다.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다양한 하위변인들 중에서 일탈행동과 보다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하위변인들을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선택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 친구의 따돌림, 교사의 적대와 같은 부정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하위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하위변인들이 다양한 심리변인들과 행동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청소년의 현재 일탈행동은 이러한 하위변인들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경로모형이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표 4의 중다회귀분석에서 일탈행동에 대해 의미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확인된 6개 변인은 모두, 그림 2의 경로모형에서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연결되는 경로모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기본모형에 대한 대안모형으로 그림 3이 제안되었다. 그림 3의 경로들은 기본모형인 그림 2의 모든 경로들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스트레스: 신체증상 변인만 추가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연결되는 4개의 변인들, 즉 부모관계: 거부, 교사관계: 적대, 폭력피해경험, 폭력가해행동과의 4개 경로가 추가되었다. 스트레스: 신체증상 변인이 대안모형에 추가되어 검토된 이유는, 스트레스: 신체증상 변인이 일탈행동에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를 보면 비록 중다회귀분석에서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아, 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일탈행동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가정할 근거가 약하다. 그러나 표 3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일탈 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r=.13$)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 4에서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예언변인들 중에 B 값(.03)과 β (.08)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 그림 1의 요인구조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이 일탈행동과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스트레스: 신체증상이 비록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경로로 연결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해 일탈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모형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을 심리특성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신체증상

에서 연결되는 변인들은 표 3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4개의 경로로 확정하였다.

먼저 기본모형(그림 2 참고)을 토대로 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1단계 경로분석 결과, 다른 경로의 계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부모자녀관계: 거부에서 폭력가해행동으로 가는 1개의 경로가 의미가 없는 것 ($p>.05$)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로를 삭제하고, 다시 2단계로 경로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적합도는 $GFI=.96$, $AGFI=.92$ 로 적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안모형(그림 3 참고)을 토대로 경로 분석을 하였다. 경로분석 1단계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에서 폭력피해경험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모형에서의 동일하게, 부모관계: 거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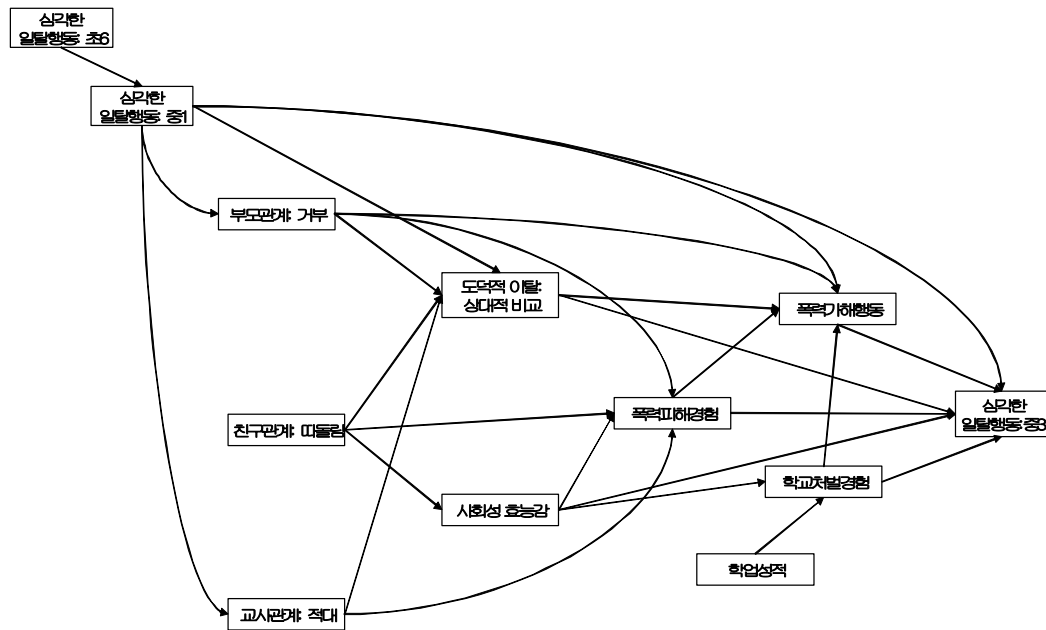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 기본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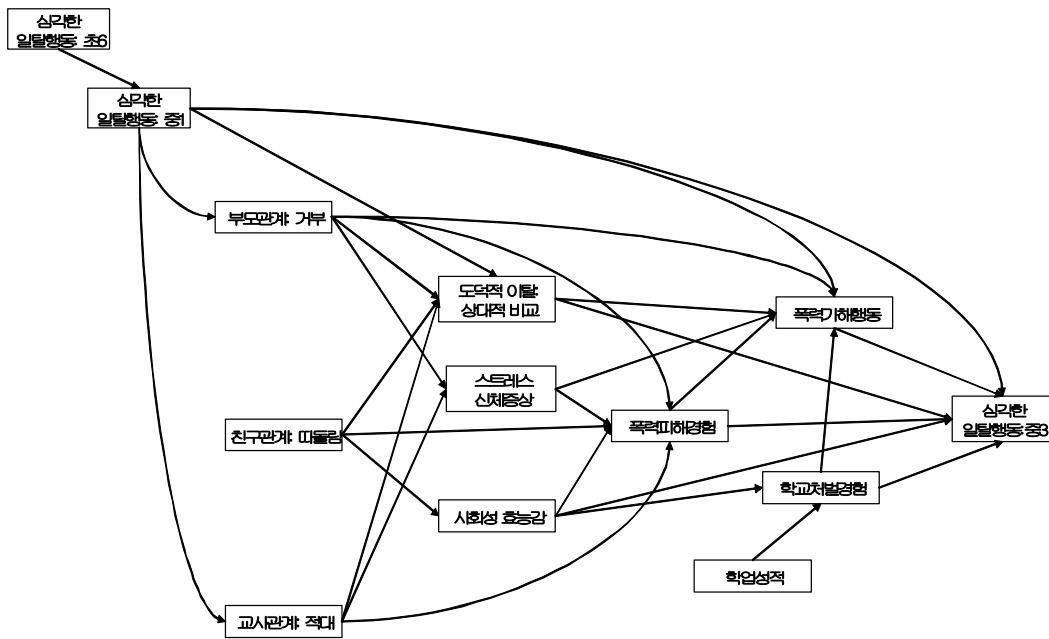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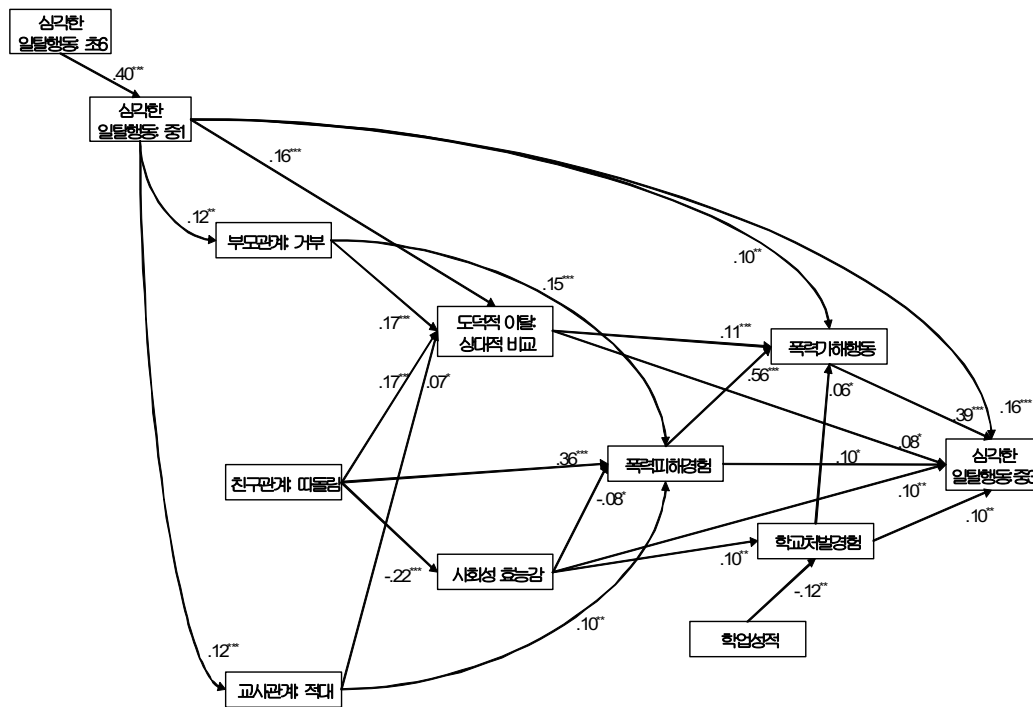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 대안모형

폭력가해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 역시 의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두 경로를 대안모형에서 삭제한 뒤에 다시 2단계 경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 신체증상에서 폭력가해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던 경로도 의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경로를 추가로 삭제한 상태에서 3단계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적합도는 $GFI=0.96$, $AGFI=0.93$ 으로 거의 그림 2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설정했던 대안모형(그림 3 참고)과 비교해 볼 때, 추가된 변인인 스트레스: 신체증상에서 연결되었던 4개 경로 중에서 3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되었고, 단지 부모관계: 거부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으로 연결되는 경로만 의미있는 경로로 유지되었다. 물론 부모관계: 거부에서 연결되는 경로의 계수가 $P=$

.26으로 매우 강한 영향이 있었으나, 스트레스: 신체증상이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을 분석하려는 이 연구의 모형에서 스트레스: 신체증상 변인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의미가 상실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본모형보다 스트레스: 신체증상 변인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 적합도 계수에서 특별한 향상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대안모형보다는 기본모형이 보다 간결하게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본모형이 채택되었다. 기본모형(그림 4 참고)의 경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과거의 일탈행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에서 보면,



모형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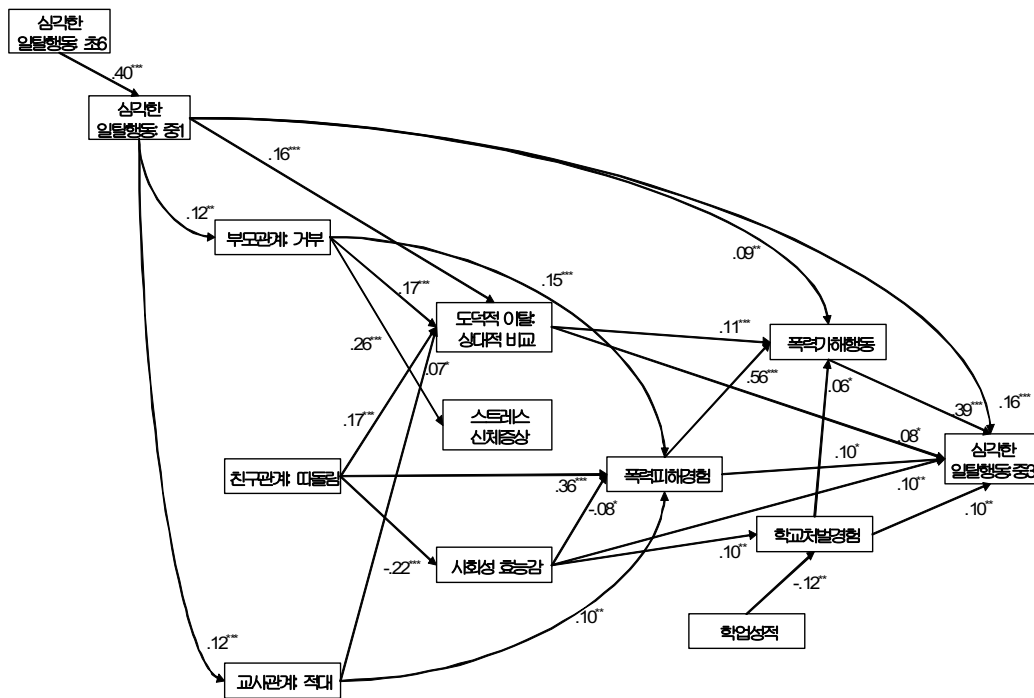
χ^2	df	χ^2/df	유의도	GFI	AGFI	NFI	RMR
174.65	39	4.48	$p < .001$.96	.92	.87	.06

그림 4.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 기본모형: 경로분석

심각한 일탈행동: 초등학교 6학년에서 심각한 일탈행동: 중학교 1학년으로 연결된 경로의 경로계수가 $P=.40$ 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심각한 일탈행동: 중학교 1학년에서 심각한 일탈행동: 중학교 3학년으로의 경로 및, 심각한 일탈행동: 중학교 1학년에서 폭력가해행동으로의 경로들도 모두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다. 즉 초등학교 6학년에서의 일탈행동 경험이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일탈행동만이 아니라 폭력가해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일탈행동의 경험이 나중의 일탈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일탈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과거의 경험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부모의 거부적 태도와, 교사의 적대적인 태도로 직접 연결되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심각한 일탈행동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가 자기에



모형적합도

χ^2	df	χ^2/df	유의도	GFI	AGFI	NFI	RMR
205.38	50	4.11	$p < .001$.96	.93	.86	.06

그림 5.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 대안모형: 경로분석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고, 교사도 자기에 대한 적대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나 교사와의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심리적으로 도덕적 이탈을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과거의 일탈행동 경험은 부모관계나 교사관계와 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여하튼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일탈의 경험

이 도덕적 이탈의 심리를 가속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이탈은 폭력가해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이 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과거의 일탈경험과 폭력가해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지니게 된다. 물론 폭력가해행동은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매우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

둘째, 일탈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특성으로서 부정적인 인간관계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부모관계: 거부, 친구관계: 따돌림, 교사관계: 적대가 모두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부모관계와 친구관계가 도덕적 이탈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는 폭력가해행동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에서의 일탈행동에 대해 강력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도덕적 이탈이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도 있다.

부모나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도덕적 이탈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폭력피해경험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거부적이고 교사가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폭력피해경험은 폭력가해행동을 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부정적인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친구의 따돌림이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심리변인들에 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흥미로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친구관계에서 따돌림은 크게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심각한 일탈행동에 다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친구의 따돌림은 폭력피해경험에 매우 강력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폭력피해경험은 폭력가해행동에 대해 이 경로모형에서 가장 강력한 경로계수를 나타내며, 폭력가해행동은 다른 심각한 일탈행동과 연결되었다. 친구 따돌림에서, 폭력피해경험, 폭력가해행동,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이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가장 강력한 경로계수들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은 청소년

의 도덕적 이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는 폭력가해행동을 야기하며, 폭력가해행동은 역시 심각한 일탈행동을 야기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친구의 따돌림은 사회성효능감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사회성효능감은 폭력피해경험에 대해 역시 부적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성효능감이 낮아지고, 사회성효능감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넷째, 앞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도덕적 이탈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도덕적 이탈이 되는 원인으로는 그림 4의 경로들을 참고해 볼 때, 청소년의 과거 일탈행동의 경험일 수도 있고, 부모나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일 수도 있다.

도덕적 이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간에, 일단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가 형성이 되면 폭력가해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심각한 일탈행동에도 많이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다섯째,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이나 폭력가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의 역할과 작용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폭력피해경험에서 폭력가해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경로계수가 $P=.56$ 으로서 그림 4에 제시된 여러 경로들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냄으로써,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폭력가해행동에 개입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폭력피해경험은 폭력가해행동을 통해

심각한 일탈행동에 간접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폭력피해경험이 직접 심각한 일탈행동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비록 그 강도가 폭력가해행동을 통해 연결되는 만큼 효과가 강력하지는 않지만,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인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처벌경험이 비록 경로계수가 크지는 않지만 폭력가해행동에도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폭력가해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각한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처벌경험이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 연결되는 경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처벌경험이 학업성과 연결된 경로는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처벌받는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은 학교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합 논의

이상의 결과들에 토대하여 특별히 흥미롭다고 보여지는 다섯가지의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즉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도덕적 이탈,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을 통해 삶의 양식으로 구성되는 일탈행동, 친구 따돌림의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 부모의 거부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경로로서 낮은 학업성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에서 일부 변인들의 신뢰도가 낮았는데,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된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이탈: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의 매개변인

이 연구의 결과 도덕적 이탈은 과거의 일탈행동과 현재의 일탈행동, 그리고 부정적인 인간관계와 일탈행동을 연결함으로써,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그림 4 참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가 거부적이고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고 교사가 적대적이라고 청소년들이 지각할 때 도덕적으로 이탈되며, 과거의 일탈경험은 도덕적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도덕적 이탈은 폭력가해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을 유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가 일탈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어 왔다. 위탁청소년이 일반 중고등학생보다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었으며(박영신, 김의철, 2001a)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었고, 도덕적 이탈은 보호관찰청소년을 판별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일탈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더욱 이탈되어 있음은 밝혔지만, 이러한 도덕적 이탈이 일탈행동 형성과정의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나아가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는 도덕적 이탈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작용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경험과학적 결과는 앞으로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후속연구에서 도덕적 이탈이 핵심적인 심리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탈을

완화시키는 교정방법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도덕적 이탈을 줄이면 일탈행동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일탈청소년의 삶의 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 시킨다든가 성취행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탈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예컨대 자기조절효능감 등을 높여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심리적 매개변인이 작용하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박영신, 김의철, 2001a; 그림 1 참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호관찰청소년 집단은 도덕적 이탈과 사회성효능감 및 가출에 의해, 일반청소년 집단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학업성취에 의해 판별 되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집단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변인이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변인들인 것이다. 한상철(2006)은 일탈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긍정적인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인들이 청소년의 가출이나 흡연 및 성관계와 같은 위험요인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건전한 부모자녀관계와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일탈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감소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주관적 안녕감이나 성취의 증진이라는 보다 적극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심리적 매개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들에 토대해 보면, 그러한 심리적 매개변인으로서 Bandura(1997)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이 매우 강력한 설

명력을 갖는다.

삶의 양식으로서 일탈: 누적되는 부정적 경험

이 연구에서 일탈행동이 다양한 부정적 행동의 경험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누적을 통해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일탈적 삶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분석 결과(그림 4 참고)를 보면 학교에서 처벌경험이 많고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폭력가해행동과 심각한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심각한 일탈행동에 개입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를 거쳐 중학교 3학년 때에도 심각한 일탈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심각한 일탈행동을 했던 학생들일수록 중학교 3학년 때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욱 거부적으로 지각하고, 교사의 태도를 더욱 적대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스스로도 더욱 도덕적 이탈의 심리를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폭력가해행동이나 일탈행동에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일탈행동 경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탈관련 행동들을 계속 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일탈경험의 누적을 통해 하나의 일탈행동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간다.

선행연구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01a; 2001b, 박영신, 김의철 2003b)을 요약하면,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 교사 친구와의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도덕적 이탈을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일탈행동에 개입하게 한다. 일탈행동에 대한 주위로부터 부정적 피드백과 처벌, 다양한 일탈경험의 누적 과정을 통해 일탈적 삶의 양식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청소년

년의 삶 전체가 일탈적 삶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든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은 늪으로 빠져드는 듯한 일탈적 삶의 고리를 어떻게 끊고 일탈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윤회를 시작하도록 하느냐에 있다. 부정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하위문화의 순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주류문화에 접속하여 그 순환을 체험하도록, 방향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류문화에서의 성취경험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매개변인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친구 따돌림의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

친구 따돌림은 일탈행동을 가속화시키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으로 확인(그림 4 참고)되었다. 친구 따돌림은 한편으로 도덕적 이탈과 정적인 경로계수로 연결되어, 따돌림을 받으면 도덕적 이탈이 야기되어 폭력가해행동이나 일탈행동을 촉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 따돌림이 사회성효능감과 부적인 경로계수에 의해 연결되고, 사회성효능감은 폭력피해경험과 또 다시 부적 경로계수로 연결되었다. 즉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성효능감이 감소되고, 사회성효능감이 낮으면 폭력피해를 많이 당하게 되며, 폭력피해경험은 폭력가해행동이나 일탈행동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 도덕적 이탈이 증진되거나 사회성효능감이 감소됨으로써 질적으로 다른 심리적 기제를 유발하지만, 이러한 매개변인을 통해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동일하게 귀결된다. 결국 친구로부터 따돌림이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일탈행동을 가속화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변인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따돌림은 따돌림을 받는 피해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폭력가해행동과 청소년 일탈행동을 가속화시키는 변인으로 영향력이 크다.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이 심리 행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검토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4c). 그 결과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위탁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은 심리 변인으로서 도덕적 이탈과, 행동 변인으로서 일탈행동 및 폭력가해행동과 동일한 요인에 분포(박영신, 김의철, 2001a)하였다.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이 청소년의 안녕감과도 결부되어 연구되었는데, 이희경(2007)은 청소년의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또래집단 내에서의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그림 4 참고)는 청소년 일탈행동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심리적 예언변인인 도덕적 이탈과 사회성효능감에 대해, 친구따돌림이 동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심리적 과정을 정교하게 밝혀내었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일탈행동을 같이 하는 친구와의 긴밀함이, 공범관계로 진전되어 일탈행동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한다(박영신, 김의철, 2003b). 그러므로 친구관계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거부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자

녀의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부모가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일탈행동을 하며, 부모가 애정적이고 정서적 지원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일탈행동을 하지 않았다(표 3 참고). 그러므로 부모의 거부적 태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도덕적으로 이탈이 되고 폭력피해도 더 많이 경험하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탈행동에 개입하였다(그림 4 참고).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변인들이 일탈행동과 일부는 정적 상관을 일부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변인들 사이의 전반적인 구조는 확인되었지만. 어떠한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변인들간의 관계가 매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다른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1a; 2001b)에서도 주로 부모자녀관계와 일탈행동의 관계 자체만 다루고 관계 내부에서의 보다 정교한 심리적 기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의 그러한 갈증에 하나의 답을 제공한다.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행동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변인인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연구에서 참신한 결과는 청소년 일탈행동에 초점을 두었을 때 거부적 부모와의 사이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변인 역할을 밝힌 점이며, 또한 부모의 거부가 또래관계에서 폭력피해경험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거부적 부모가 한국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이 왜 큰가를 잠시 검토해 보자. 여기에서 한국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혈연관계였다(박영신, 김의철, 2005)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피로 맺어진 부모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신뢰한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그러한 한국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박영신, 김의철, 2004a)를 고려해 볼 때, 절대적 관계의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함이 주는 충격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된다. 그러한 마음의 구멍 도덕적 이탈의 마음은 싹트는 것이며, 일탈적 삶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청소년 일탈행동을 촉발시키는 보이지 않는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학업성취: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경로

학교처벌 경험이 일탈행동과 정적 관계에 있음은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1a; 2001b)에서 드러났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처벌경험이 학업성취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즉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면 처벌을 많이 받게 되고, 학교 처벌경험이 많을수록 폭력가해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에 개입을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그림 4 참고)이 밝혀졌다.

학생이 잘못되길 바라고 학생을 처벌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처벌경험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처벌을 하는 교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 목적이었다 해도, 처벌은 그 선의의 논리를 따르지 않음을 반증한다. 학교처벌경험이 일탈행동 개입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처벌은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낮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여하튼 처벌은 일탈로 가는 경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로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부작용을 낳으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처벌받는 결과는, 학업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국의 학교 풍토와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이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서 학업성취가 대표적이고, 이러한 성취를 위해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Kim & Park, 2006c)가, 한국 사회 교육열의 심리적 기반을 보여준다.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력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이며 달리 말하면 자기조절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성실한 태도는 학교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가치이고, 학생으로서 본분인 학업에 충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학업성취는 단순히 지적 성취 차원이 아니라 학업성취과정에서 함양해야 할 정의적 태도를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처벌이 문화적으로 쉽게 용인된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한국 청소년의 세계적인 학업성취와 경제성취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성취-->학교처벌경험’의 부적인 경로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즉 ‘공부 못하면 혼나야지’에 대해 학생이나 부모나 교사나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무감각을 키워 왔다 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 교육적 성취의 빛과 그림자(박영신, 김의철, 2002)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적인 수학 과학성취도를 보이는 한국 청소년들은 교육열의 빛을 쬐 것이며, 일탈 청소년들은 교육열의 그림자에 파묻힌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의 교육성취와 관

련된 토착 심리가 양산해 내고 있는 빛과 그림자, 그 모두에 주목하며,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빛의 세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책무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학문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박영신, 김의철, 2003c)하였다.

후속연구 제안: ‘생각의 주머니’

이 연구의 결과들은 후속연구를 위한 생각의 주머니를 턱없이 키웠다. 한 개 연구가 겨우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핵분열하듯 다섯 개 연구가 생각의 주머니에 담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몇 가지 궁금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탈행동 반복의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일탈행동이 과거의 일탈행동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모형이 설정되고 검증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현재의 일탈행동이 미래의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시각에서 일탈행동 형성과정의 모형을 설정하고, 종단자료에 토대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동일하게 일탈행동 반복을 다루지만, 인간의 행동을 과거의 산물로보다는 미래를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철학에 기초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이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으로,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이 중학교 3학년에서의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들을 검토하였다.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표집대상들을 종단적으로 계속 추적하여 중학교 3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이 고등학교에서

의 일탈행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과거 즉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에 의해 현재의 일탈행동이 형성되는 모형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현재의 일탈행동이 미래의 일탈행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학업성취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단분석에서 과거의 성취도로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가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3)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학교 3학년에서의 학업성취가 미래 고등학교 2학년에서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Kim & Park, 2006b)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시간의 맥락 속에서 행동들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과거의 결과로서 현재의 행동을 바라보기 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의 행동을 접근하는 철학에 서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모형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탈행동의 종단적 분석을 위한 첫 단계의 기초 분석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을 과거의 경험보다 미래의 행동에 대한 예측에 집중하는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후속 모형을 위한 하나의 밑알이 되었기를 바란다.

둘째, 학교 오락실과 같은 현실에서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은 폭력이라든가, 절도, 사기나 공갈 등 현실 삶의 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것들이었다. 물론 요즘도 청소년들의 그러한 일탈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탈행동의 현상에 새로운 변화가 추가되고 있는데, 즉 사이버 공간을 일탈의 무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사기나 공갈도 인터넷 사기 또는 사이버 상에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이 극성을 부린다. 이제는 성적인 문제도 인터넷에서 채팅을 통해 번개팅으로 만나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매매로 연결되는 등 인터넷이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 일탈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에 보다 가속도가 붙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그 속에서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은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연구 주제의 선정이나 연구의 결과가 현실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가 청소년들에게 생활화됨으로써,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임을 인식하고,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곽금주, 2004) 등 관련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 이 분야의 연구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역동에 대한 분석(박영신, 2007)이라는 큰 틀 속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의 메커니즘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탈청소년의 일탈행동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의 심리적 기제들을 함께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이다. 이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일탈청

소년의 일탈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와 관련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일탈행동을 예측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탈청소년들의 미래 삶의 질이라는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반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6)은 있었으나, 일탈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패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일탈청소년은 도덕적 이탈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삶이라면, 성취하는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 에너지를 창출하는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작동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탈청소년들의 도덕적 이탈 정도를 어떻게 감소하느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인가를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으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일탈적 삶과 성취의 삶은, 일탈의 정도가 많고 적거나 또는 성취의 정도가 많고 적은 것과 같은 양적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의 삶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기술과 양식이 요구된다.

연구의 과정은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지만, 구축된 이론이 현장에 응용되면서 사회적 책무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찰은 일탈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같은 주제들에서 더욱 요구된다. 일탈청

소년도 일탈청소년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이든 친구관계든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일단 일탈행동에 개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늪에 빠지듯 일탈의 삶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일탈적 삶의 과정에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어떻게 긍정적 에너지가 충분한 질적으로 다른 삶의 윤희로 전환하는 생애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 변인들에 대한 탐구와 전략이 필요하다. 심리학적 이론이 삶의 현장에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고 긍정적 에너지를 창출하며 보다 질 높은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넷째,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 및 도덕적 이탈의 변화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도덕적 이탈이 인간관계나 과거의 일탈경험과 현재의 일탈행동을 매개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이러한 도덕적 이탈 변인이 일탈행동 형성과정의 맥락에서 다양한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역동적으로 맺고 있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그러한 분석 결과들을 다양한 표집대상에서 재확인함으로써 결과의 외적타당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이탈이 발달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개관해 보았을 때(박영신, 김의철, 2003b),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해 가면서 청소년들이 주위에서 받는 전반적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고,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이탈의 심리가 어떠한 변화를 하는지, 또한 성인기에는 도덕적 이탈이 어떠한 수준으로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신뢰 및 불신에 대한 연구들과 결부하여 한국 사회를 이

해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될 것이다.

다섯째, 일탈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도 한국인 토착심리에 관련된 변인들의 작용에 대한 검증은 정교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취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성취동기를 증진시키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적 역동들이 밝혀지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3). 그러나 일탈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지각이 일반청소년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애정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경험하며, 이렇게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로부터 거부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도덕적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논의한 바처럼 이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의 거부가 도덕적 이탈로 연결되는 경로라든가, 학업성적이 학교처벌경험으로 연결되는 경로들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시사 된다.

이러한 토착심리를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구체화된 변인들의 모습으로 구현하고, 그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토착심리의 기제를 명료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남아있다. 한국 사회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청소년 심리와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박영신, 김의철, 2003b)하며,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도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 마음의 진주를 찾아서

청소년 일탈행동 지도를 위한 시사: 개별적 일탈행동 지도에서 학습환경 리모델링으로

일탈청소년은 태어나는가? 만약 일탈청소년이 태어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연구가 존재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물론 유전인자가 XYY형과 같이 극단적으로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탈행동을 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일탈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일탈청소년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에 개입하고 또한 반복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와 구조 즉 그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면, 청소년의 발달에서 특히 일탈과 관련된 심리와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일탈청소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구성해 나가는 심리의 결과로서 일탈행동이 형성되는 것임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즉 일탈청소년이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도덕적으로 이탈되고, 그러한 심리특성들이 일탈행동을 유발하며, 이러한 일탈행동의 반복된 누적을 통해 일탈적 삶을 구성해 나간다는 시각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일탈청소년이 될 수 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재형성의 가능성 즉 일탈청소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탈적 삶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탈청소년이 일탈적 삶에서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재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일탈청소년의 일탈행동이 단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탈청소년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탈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이 필요하지만, 일탈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리모델링 작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의 개선 없이 일탈행동의 변화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일탈청소년의 행동변화 자체에만 집중한 교정교육을 학습환경의 재구축이라는 시각과 병행할 때 보다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개인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위에서 부모 교사 친구들이 집단효능감을 갖고 도움 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한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 전체가 집단효능감을 가질 필요(박영신, 김의철, 2003a)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탈청소년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도 집단효능감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는 주로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일탈행동은 그 정도가 심해졌을 때 각종 상담센터나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라든가 소년원 등 사회기관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 사회조직에서 일탈청소년 지도에 대한 집단효능감이 더욱 중요해진다.

일탈청소년들을 인생의 플랫폼에서 다른 방향의 차선으로 바꾸어 탈 수 있도록, 부모 교사 카운슬러 사회구성원들이 도와야 한다. 플랫폼은 어디론가 가던 길을 바꾸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이며, 어떤 방향으로도 열려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의 처벌 또는 치유 그 자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일탈적 행동을 일으키는 환경적 심리적 역동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통한 삶의 양식 자체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탈청소년 행동변화를 위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효능감을 갖고 사회라는 거대한 학습환경을 어떻게 리모델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공동의 책무성을 갖는다.

마음의 진주를 찾아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탈청소년은 부모 교사 친구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일탈행동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일탈청소년들은 부모의 거부, 친구의 따돌림, 교사의 적대와 같은 매우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변인들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부정적인 관계의 누적된 경험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가속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지닌 일탈청소년은 치유되기 어려우나?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산출된 부정적인 결과는 계속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일탈청소년들이 일탈적 삶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생의 윤회와 같은 절망적인 운명의 고리에 낚여드는 것과 같다. 즉 과거의 일탈 경험은 인간관계를 비롯한 주위 환경을 더욱 일탈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도덕적 일탈은 가속화되며, 도덕적 일탈은 더욱 다양한 일탈 경험을 촉진시키고, 심화된 일탈행동은 미래를 더욱 부정적으로 하는 비극적 시나리오이다. 모델 접합도가 높은 이 연구의 경로모형(그림 4 참고)을 들여다볼 때, 현실을 간명하게 설명하는 경로들의 이론적 명쾌함에 의한 즐거움

은 있으나, 이 경로들이 일탈청소년의 삶의 흐름이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암울해진다.

이러한 절망적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해결은 절망적 순환 내부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상처의 치유라는 시각에서의 접근보다는 부정적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 일탈행동에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성취행동에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다르다(박영신, 김의철, 2001a; 그림 1 참고)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는 불행에 유발하는 요소가 제거된다고 저절로 행복해 지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탈의 정도를 줄인다고 해서 성취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자기조절효능감과 같은 또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의 획득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탈행동을 안 하는 상태가 곧바로 성취행동을 추구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성취행동을 추구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성취행동과 전혀 무관한 무기력한 상태, 또는 좌절 상태일 수도 있다.

마음의 상처가 부정적인 경험의 결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마음의 상처가 아닌 마음의 진주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바다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 진주는 조개 속의 상처가 그 아픔의 세월을 던고 만들어지는 보석이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상상도 못할, 청소년으로서

극복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아픔을 대부분의 일탈청소년들은 마음 속에 품고 있다. 이 아픔을 양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즉 긍정적이고도 생산적인 에너지로 연결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이 창의적이어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탈적인 삶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다른 세계로의 접근을 향한 자유로운 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양적으로 단순히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주위사람들이 도와야 할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탈청소년의 삶의 질은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단지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세계에서의 탁상공론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인식의 전환만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되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성공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중학교 때 심한 왕따를 경험했던 청소년이, 체험을 살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 800여 명이나 상담하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2005년부터 공식적인 최연소 상담사가 되었다(조선일보, 2007년 1월 16일). 평생 일탈행동을 해 본 적도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교사가 ‘너 왜 그러냐, 답답하다’는 식으로 학교 상담실에서 꾸짖듯이 계속 면담해 보았자, 일탈청소년들이 마음 문을 열리가 없다. 그러나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은 경험을 토대로, 어떤 카운슬러보다 따돌림 당하는 청소년의 아픔을 훨씬 잘 이해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성공적인 상담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다시 삶의 활력을 찾게 해

중으로써, 이 청소년은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상처를 단지 감소하고 치료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하여 성공한 예이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진주로 획기적인 전환을 창의적으로 이루어낸 사례이다.

한국 사회의 관계문화 맥락 속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의 토착심리 탐구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것이 토착심리학의 철학(Kim & Park, 2006a)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의 근거이다. 한국 사회의 관계문화 맥락 속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 설명(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하는 이론적 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예컨대 고생하며 희생하는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한국 청소년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팽개친다고 지각할 때, 그런 부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죄송할 것도 없다. 공부할 의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막가는 마음으로 일탈행동을 하는 것이다(Park & Kim, 2004). 일탈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시사하는 흥미로운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이 있다.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 청소년도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혈연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 토착적 신뢰의식을 가진 한국의 청소년들(박영신, 김의철, 2005)이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상상해 보라. 앞친데 뒷친

격으로 친구들마저도 따돌린다고 상상해 보라.

토착심리학 이론(Kim, Yang & Hwang, 2006)이 갖는 매력 중의 하나는, 문화를 통해 사고하는 작인으로서의 인간을 가정(Kim, 1999)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 행동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함축한다(박영신, 김의철, 2001a)는 점이다. 즉 인간이 삶의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고 통제하며, 나아가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환경과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 그것은 바로 일탈청소년 자신에게나, 일탈청소년에게 도움주기를 하려는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신념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마련되고, 형성된 이론이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어 실제적 성과를 거두는 적합도 높은 모형, 즉 현실에 뿌리를 두고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유연하게 변형되어가는 이론이 요구된다. 친구로부터의 집단따돌림 경험을 토대로 따돌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한국 청소년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성공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연구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여(Larson, 2004) 삶의 현장에서 밝혀진 이론적 틀을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의 부모, 학교의 교사, 상담센터의 카운슬러,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인식에 기반을 둔 노력이 확산되고 일반화될 때, 한국 사회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바다 속 상처받은 아픈 조개의 귀한 진주처럼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품게 될 것이다.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탈청소년이 리모델링되는 학습환경의 영향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이론, 그리고

이론을 변화시키는 현실, 이렇게 이론과 현상이 변화의 상호적 매체로 작용할 때 각각은 생명력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금주 (2004). 컴퓨터 게임과 아동, 청소년 발달과의 관련성에 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147~175.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06 청소년 백서.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대검찰청 (2007). 범죄개관 및 소년 학생 범죄 분석. 소년 범죄자 전과 p.468~469. <http://spo.go.kr>
- 박영신 (2007).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초청 심포지엄,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85~125.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양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a).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1b).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a).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영신, 김의철 (2003b).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2003c). 제 4장. 한국 교육학의 토착화에 대한 회고와 전망: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자생적 한국 교육학의 미래. 122~161. 서울: 원미사.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45~76.
- 박효정 (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경 (200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안녕감.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청 심포지엄,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65~84.
- 조선일보 (2007년 1월 16일). '왕따들의 상담사'된 왕따 소녀: 체험 살려 2005년 최연소 상담사례.
- 한상철 (2006).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특집호), 99~116.
- Allwood, C., Berry, J., Boski, P., Cheung, F. M., Hwang, K. K., Kao, H., Kim, U., Park, Y. S., Marai, L., Moghaddam, F. M., Nikora, L. W., Levy, M., Masters, B., Waitoki, M., Nsamenang, A. M., Protacio-De Castro, E., Fabros, M. C., Kapunan, R., Saraswathi, T. S., Sinha, J. B. P., & Yang, K. S. (2006). Origins and development of indigenous psychologies: An internatio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43~268.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 Park, Y. S. (2006a). The scientific foundation of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In U. Kim, Y. S. Yang, & K. K. Hwang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Kim, U., & Park, Y. S. (2006b).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 collective efficacy. Pajares, F., & Urdan, T.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 Park, Y. S. (2006c).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87~292.
- Kim, U., Yang, K. S., & Hwang, K. K. (Eds.)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Larson, J. (2004). School violence prevention. Spielberger, C.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355~360.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1차 원고 접수일 : 2007. 1. 5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2. 16

Longitudinal analysis of factor influencing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social perspectives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Uichol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Younghee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influence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using longitudinal analysis. A total of 1,012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en they were Grade 6 and 739 students completed a follow-up questionnaire when they became Grade 9.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the following variables predicted delinquent behavior of Grade 9 students: Bullying, previous delinquency, experience of punishment, victimization, social efficacy, and moral disengagement. The above six variables have direct and mediating influence of delinquent behavior. Relational factors also influenced delinquent behavior. Social exclusion from friends reduce social efficacy, which increases victimization and which in turn increases bullying, leading to greater delinquency. Parental rejection, social exclusion from friends and hostility from teachers increase moral disengagement, which increases bullying, leading to delinquency. Low academic achievemen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being punished, which increases bullying, leading to delinquency. The results indicate that moral disengagement and social efficacy are mediating factors of delinquency and negative life-events (i.e., social exclusion from friends, rejection from teachers, hostility from parents and low academic achievement)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Korean adolescents will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delinquency, moral disengagement, social efficacy, victimization, bullying, punishment, social exclu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ongitudinal analysis.